

<편집위원장 서문> 「환경법과 정책」 제15권을 발간하면서...

안녕하십니까. 「환경법과 정책」 편집위원장 함태성 교수입니다. 「환경법과 정책」 편집위원회에서는 제15권의 특집주제를 ‘재생에너지의 법정정책적 과제’로 정하였습니다.

에너지 자원이 빈약하고 화석연료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발, 이용, 보급 확대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15권에서는 이러한 법정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하여 특집주제를 “재생에너지의 법정정책적 과제”로 정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논문 4편을 게재하였습니다. 이순자 박사님은 “한국에서 재생에너지의 한계점 및 개선사항-풍력발전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Lincoln L. Davies 교수님은 “U.S. Renewable Energy Policy in Context”라는 주제로, 이유봉 박사님은 “기후변화시대의 해상풍력발전 추진을 위한 외국에서의 새로운 입법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이상훈 소장님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귀한 원고를 주셨습니다. 이들 원고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법정정책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갈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일반연구논문으로는 “기후변화와 국가의 책임-최근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을 명한 네덜란드 판례를 중심으로-”라는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네덜란드 지방법원의 소송결과가 다루고 있는데, 해당 법원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여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환경법과 정책」 제15권이 발간되는데 큰 도움을 주신 편집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장님, 강원대 로스쿨에서 저와 함께 환경법을 담당하고 있는 박태현, 박시원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